'아빠'와 '부군(夫君)'

심 재 기
(서울대 교수)

남녀 한 쌍이 한 팀이 되어 실력을 다투는 텔레비젼의 퀴즈 프로그램 시간이었다. 먼저 사회자가 첫번째로 나온 팀의 여인을 향하여 질문을 던졌다.

"함께 나오신 분과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여인은 생글생글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아빠예요."

"아, 그러십니까?"

이렇게 응수한 사회자는 남자 쪽을 향하여 아주 자신에 찬 어조로 칭찬의 인사를 건넸다.

"어휴, 아주 미인 따님을 두셨읍니다."

그러자 그 중년의 신사는 갑자기 곤혹스런 표정을 지으며 대답하였다.

"저어, 딸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입니다."

그 순간, 사회자도 그 여인도 다음 말을 잇지 못하고 얼굴들이 홍당무가 되어 어색한 낯빛을 짓고 있었다.

이때 문제의 원흉은 '우리 아빠'라는 한마디 말이 아닐 수 없다. 남편을 제삼자에게 일컫는 말에 하필 '아빠'를 사용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남편'도 좋고 좀 점잖은 표현으로 '주인어른', '바깥어른'도 있다. 그것이 전 시대적이라 생각되면 '애들 아빠'도 좋고 '애기 아빠'도 좋으며 '우리 집 아빠'라 해도 좋을 것 아닌가? '집'자 하나만 넣었어도 사회자

가 그런 망발의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요즈음 젊은 여인들이 남편을 부를 때, 자녀의 이름을 관형어로 앞에 놓지 않고 그냥 '아빠'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일반화하다 보니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세상의 변화는 이렇듯 가족 호칭의 무질서를 초래하였다.

얼마전 평소에 친숙하게 지내는 친구의 부인을 만났다. 그 부인은 어느 대학의 교수직을 가지고 있다.

"선생님, 좀 쑥스러운 질문 하나 하겠어요."

"무슨 말씀이신데 쑥스럽다고 하십니까?"

"부군(夫君)의 정확한 사용법을 몰라서 그래요."

"부군(夫君)요? 그야 어떤 여인의 남편을 가리킬 때 쓰는 것 아닙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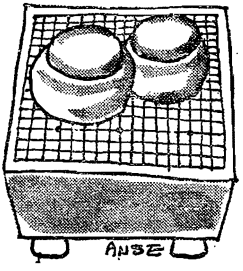
"누가 그걸 몰라서 그럽니까? 저의 학교 학생들이 가끔 제게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부군은 무엇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저는 섬찟해지면서 불쾌한 감정을 참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듣고 보니, 그럴 듯한 말이었다. '군(君)'이란 낱말이 '학생 제군(諸君)' 같은 표현에서 드러나듯 아랫사람을 가리키는 데 많이 쓰이기 때문이다. 하기는 윗사람이 손아래 여인, 예컨대 제자뻘 되는 여인을 오랫만에 만났을 때, "그래, 결혼 했어? 부군은 무얼 하시고…"라고 정겹게 물을 경우가 아니고는 쓰기에 조심스런 낱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선생님의 남편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은가? 옛날에는 여인들의 사회 활동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부를 수 있는 적절한 명칭을 마련하지 못하였었다. 그러니까 새로이 만들 수밖에 없다. 무엇이 좋을까? 묻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그만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생각이다.

누군가 '사모(師母)님'에 대응시켜 '사부(師父)님'이 어떠냐고 했지만, '사부(師父)'라는 말이 바로 스승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적합한 용어라 할 수가 없다. '선생님의 남편되시는 분'쯤이면 좋지 않을까? 조금

어색할지 몰라도 '선생님의 바깥어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선생님의 바깥선생님'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두 세 음절로 표현되는 간단한 낱말이 없다고 유식한 체 '부군'을 사용하여 스승의 감정을 상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수수께끼

- 꼿꼿이 서서 눈물만 흘리는 것은? 〈촛불〉
- 차면 서고 비면 앉는 것은? 〈자루〉
- 눈 좋은 사람에게는 잘 안 보이고, 눈 나쁜 사람에게는 잘 보이는 것은? 〈안경〉
- 더우면 옷을 입고 추우면 벗는 것은? 〈나무〉